

### <2월 27일 토요일 법회 식순>

**\* 1부 : 사시헌공**

♫ 불자님과 함께하는 찬불가 연습

※ 제 12, 13대 정각원장 이·취임 인사 말씀

**\* 2부 : 불교대강좌**

· 삼귀의

· 찬불가

· 청법가

· 법문 - <진정한 행복>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수불스님

· 음성공양 - 신도회 합창단

· 정근

· 사홍서원

※ 교리반 5기, 입문반 10기 졸업(수료)식 : 13:30~

### <초청강좌 안내>

날짜	주제	법사
3. 5(토)	개강 특별법문	월운 큰스님 (남양주 봉선사 조실)

### <정각원 불교아카데미 모집>

구분	강좌내용	법사	강의실
입문반	불교입문	고금스님	법학관 B158
교리반	I 초기불교 불교신행	정천스님	법학관 B255
	II 대승불교 불교문화	명선스님	
漢詩반	한시(漢詩)강좌	동봉거사님	법학관 B258

\*매주 토요일 법회 후 13시 30분부터 진행합니다\*

## 丙申年 인등을 밝히세요



각자의 원을 담은 공덕행(功德行)!  
행복도량 정각원에 인등을 밝히세요~

**1년 5만원 <투요 사시기도에 축원해 드립니다>**

정각원 행정팀 ☎ 2260-3016~20



정각원 부처님께 공양미 올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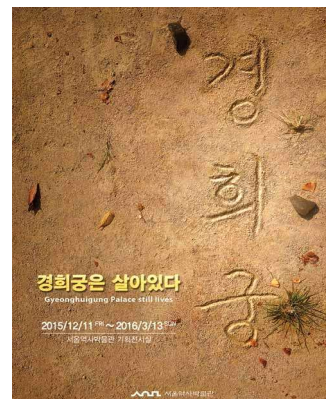
보시금은 **1만원**입니다. <정각원 신도회>



## 崇政殿 현판 전시 안내

정각원 내부에 모셔진 승정전 현판이 <서울 2000년 역사문화 특별전 '경희궁'>에 전시됩니다.

조선시대 경희궁의 창건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살펴보고, 경희궁의 흩어진 부재들의 흔적 찾기를 통해 궁으로서의 위상 및 역사성을 회복하고자 기획된 전시이니 많은 관람바랍니다.



**\* 기간**

2015년 12월 11일(금)~

2016년 3월 13일(일)

**\* 장소**

종로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A

**\* 문의**

02)724-0274~6

## 보시동참

☪ 2월 22일 불전 공양 ☪

₩1,512,000원 (복지기금 적립 포함)

해주스님, 진우스님, 김문자, 김봉주, 강은서, 고목훈, 구리시효자봉비에, 권복숙, 권혁재, 김광한, 김문자, 김정애, 김종관, 남대문효자손만두, 남창강, 박선재, 박성진, 박재은, 안대준, 양성수, 양은영, 원서준, 유용재, 유재석, 이기형, 이동하, 이봉자, 이성부, 이수준, 이인주, 이주용, 정보현, 조승현, 주호빈, 주호성, 최선자, 최은진, 최홍희, 탁정민, 하지현, 한영옥  
(그 외 무기명 보시 불자님)

**☪ 법회경비 집행내용 : 교비 지출 ☪**

₩1,450,000원

(법사비, 토요일법회 녹화영상 편집비, 법보지 인쇄비 등)

**☪ 인등공양 ☪**

강경현, 김성태, 김솔례, 박경빈, 신규순, 양승훈, 임귀동

**☪ 공양 보시 ☪**

❖ 불단 과일 : 정각원 신도회

❖ 불단 떡 : 정상부, 교리반 5기 졸업생 일동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 가지 공양(향, 초, 차, 과일, 꽃, 쌀)에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소득공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은  
보시봉투에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딱 한번만!**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 정각원 토요법보

信心장한 불자 됨이 불교의 희망입니다.

불기 2560(2016)년 2월 27일

제322호(週刊)



바른 가르침을 믿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법구경』

## 해인사 <慧可斷臂圖>



◎ 선종의 2대조사 혜가스님은 소림굴의 달마대사를 찾아가 법의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부처님의 위없는 도는 오랜 곱 동안을 부지런히 정진하며 행하기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고 참기 어려운 일을 능히 참아야 얻을 수 있다." 라고 하시니 이에 혜가스님은 칼을 뽑아 왼쪽 팔을 자르셨습니다. 그러자 파초가 피어나 잘라진 팔을 고이 받쳐 들었습니다. "모든 부처님들이 처음에 도를 구할 때에는 법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잊었다. 네가 지금 팔을 잘라 내 앞에 내놓으니 이제 구함을 얻을 것이다." 그 후 혜가스님께서서는 달마대사의 가르침을 받아 선종의 제2조가 되셨습니다. 정각

# 〈진정한 행복〉

동국대학교 국제선센터 선원장

수불스님

우리는 불교가 무엇을 가르치는 종교인지 잘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깨닫고 삼계(三界) 유식(唯識)이 모두 마음과 둘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난 뒤에,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어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말씀해 놓은 것들이 뒤에 불교가 된 것입니다.

종교를 믿는 이유와 목적은 진리를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교를 믿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신행생활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종교를 믿으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참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아서 자기 발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인사(天人師)이신 부처님의 제자로서 바른 신행생활을 하려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보다 넓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스스로 깨닫기는 엄청나게 힘들겠지만, 먼저 진리의 길을 밝힌 선지식을 만나 그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리 어려운 일만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깨달음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는 발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불교의 본령이기 때문입니다.

다 드러났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진리는 모양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크고, 또한 가장 작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크다고 할 수도 없고, 작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살아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체득해야 됩니다.

진실 된 불자라면 수준 높은 차원의 불교를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믿는 목적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회의가 생기지 않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고 안 믿고에 관계없이, 종교윤리(宗敎倫理) 의식에 대한 올바른 체계를 세워야 됩니다. 종교윤리 가치관이 바로 설정되면, 종교를 이해하는 안목이 바뀌게 됩니다. 종교윤리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사회를 이해하고 있는 사회윤리(社會倫理) 관념으로 종교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회윤리와 종교윤리는 서로 차원이 다른 것을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윤리 가치관으로 보다 높은 차원의 종교윤리 가치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올바른 가치 판단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윤리에서는 선(善)은 진리이고 악(惡)은 진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종교윤리에서는 선도 진리이고, 악도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진리 그 자체는 선악을 다 포용하지만, 선악에 물 들어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진리는 둘로 갈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전체인 진리 속에서는 선도 일부분이고, 악도 일부분입니다.

우리 마음은 깊으면 깊을수록 그 밑은 더 이상 비춰볼 수 없는 칠혹 같은 근본무명(根本無明) 즉 무간지옥(無間地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칠혹 같은 어둠을 전깃불같이 확 밝혀 근본무명을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는 힘은 다른 어떤 것이라도 불가능하며, 오직 반야지혜라야만 가능합니다. 지혜의 빛은 태양 광명보다 더 빛나고 밝기 때문에, 칠흑을 깨트릴 수 있는 큰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명 속에 뒤덮인 채로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초라한 형색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마음속의 지혜광명을 밝힐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행히 부처님께서 생사를 벗어 던지고 고통의 이 언덕에서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저 언덕으로 넘어갈 수 있는 큰길을 제시하여, “그 길을 가라. 능히 나아갈 수 있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과 그 뒤를 이은 역대 조사님들께서 드리내신 지혜광명(智慧光明)이야말로, 번뇌 망상을 물리치고 칠흑 같은 근본무명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큰 힘입니다.

불교를 믿는 분들에게 드릴 중요한 말씀은 ‘영험(靈驗) 있는 법당(法堂)’에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험 있는 법당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부처님은 온갖 곳에 다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는 늙게 되어 있고, 늙으면 영험 있는 법당도 낡고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험 있는 법당이 낡아서 다 허물어지기 전에, 일찍부터 종교를 잘 믿고 올바르게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죽으면 영험 있는 법당이 없어집니까? 그렇다면 종교도 윤리도 다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법당은 죽어도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시 영험 있는 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기도 모르게 삼독과 번뇌 망상으로 어두워져 있는 마음을 지혜광명으로 신령스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에게 우리가 본래 구족하고 있는 지혜광명을 밝힐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부처님의 정법과 인연을 지으며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지혜광명을 밝히기 위한 수행법 중에서, 옛날부터 수많은 조사들이 체험하여 제일 좋다고 한 것이 선수행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수승(殊勝)한 선수행법은 간화선(看話禪)의 화두(話頭) 공부입니다.

공부 길을 잘 아는 명안종사(明眼宗師)께서 장치하신 시설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한번 부닥쳐보면, 그 위대한 지혜광명이 내 안에서 확 뿔어 나와 안심입명(安心立命)이 됩니다.

이 화두 공부는 승속(僧俗)을 불문하고 누구나 어디서건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불사(佛事)는 불성(佛性)을 깨우쳐 부처가 되려는 믿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화두를 들고 의심하고, 마침내 의단을 타파하여 지혜광명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뵈고” 화두는 선지식이 학인(學人)에게 의심하도록 하는 문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화두 제시는 깨달음을 확실하게 믿고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의지해올 때 베푸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화두 의심이 생기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타파해야 하는데, 꼭 스승을 찾아 해결해야 합니다.

화두 공부는 의심을 일시적으로 가라앉히는 공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리석음을 제거하는 공부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좋은 스승을 만나 공부하게 되면,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사스님들의 말씀으로도, 또 그동안 화두 공부를 한 수많은 학인들이 체험하여 증명한 사실입니다.

이왕 불교를 믿는다면, 한국불교의 자랑스러운 정통 수행법인 간화선과 인연을 맺도록 권선하고 싶습니다. 영험 있고 신령스러운 법당인 우리 자신이 영원한 진리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체득하여야, 진정으로 부처님 은혜를 갚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말을 참고하시어 보다 지혜로운 믿음을 통해 밝은 내일을 기약하시기 바라며, 바르게 정신을 가다듬어 부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바입니다.